‘김영란법’ 맞춤 선물…정성도 가득하네

‘보해 추석 선물세트’ 10종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보해복분자주와 매취순 등 보해양조㈜의 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보해 추석 선물세트’ 10종을 출시한다. 이번 선물세트는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부담 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고품질의 국산 복분자와 매실로 만든 과실주를 5만원 이하 선물세트로 선보여 정성과 실속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매취순 20년 ‘매취순 12년’ 3L…매실+와인 ‘매이 4본입 세트’
유자·매실 원액 보해프라임·매실절임 등 웰빙 음료·식품도
고품질 국산 복분자·매실 과실주…5만원 미만 실속세트 마련

◇대한민국 NO.1 ‘보해복분자주’ 선물세트=매년 명절마다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았던 ‘보해복분자 드림 세트’는 이번 추석에도 동일한 구성으로 출시된다. 국산 복분자를 엄선해 만든 375ml 용량의 보해복분자주 3병과 전용잔이 담겨 있으며, 가격은 2만3000원이다. 한가위의 넉넉한 인심을 담은 대용량의 ‘보해복분자 750ml 세트’(3만원)도 새롭게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보해복분자주는 국내 복분자주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0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보해복분자주는 최상급 복분자만을 사용하여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한다.

◇매취순 출시 20주년 기념주 ‘매취순 12년’=매취순의 프리미엄 라인 ‘매취순 12년’ 선물세트는 출시 2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주로 만나볼 수 있다. 매취순 12년은 보해매실농원에서 수확한 최고급 청매실로 만든 원액을 12년간 숙성해 웅장한 크기의 3L 병에 담았으며, 깊고 진한 매실 향이 특징이다. 가격은 4만2000원으로 각종 모임에서 격조를 높이는 황금빛 거치대를 함께 제공해 소장 가치를 더했다.

청매실의 깊은 맛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매실주이며, 3L의 대용량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의 품격을 높여주는 격조를 갖춘 제품이다.

◇매취순 오리지널 3본입 세트 인기=보해양조㈜는 다채로운 구성의 매취순과 매실 관련 제품도 추석 선물세트로 선보인다. 매취순 대표 제품인 ‘매취순 오리지널 3본입 세트’를 비롯, 10년 숙성한 매실 원액으로 만든 ‘매취순 OLD 3본입 세트’는 1~2만원대로 판매된다. 매실 원액에 화이트 와인을 더한 플럼 와인 ‘매이 4본입 세트’는 8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한정판으로 판매된다.

매실주는 아름다운 황금빛이 진할수록 좋은 술이며, 무엇보다 입에 머금었을 때 매실 향을 얼마나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품질이 결정된다. 매취순은 해남 땅끝 마을의 황토에 뿌리를 두고 남도의 해풍을 맞고 알차게 자란 최고급 국산 청매실만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진한 향과 깊은 맛, 황금빛 색감이 일품이다.

◇‘보해프라임 선물세트’도 인기몰이=매실, 복분자, 유자 원액으로 만든 웰빙 음료인 ‘보해프라임’은 3병을 묶음 구성해 ‘보해프라임 선물세트’(2만4000원)로 선보인다. 이외에도 ‘매실추출물 골드세트’(1병당 6만원), ‘원매실단 매실추출물 세트’(1병당 5만5000원), ‘자연이 준 선물 매실절임’(3만5000원)이 준비돼 있다.

우리나라의 최남단 땅 끝 해남, 보해매실농원에서 생산되는 매실은 다른 지역의 매실보다 신맛과 향이 진하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표면이 윤택하고 잔털이 많으며 흠이 거의 없어 매실액기스나 매실절임 등으로 가공했을 때 그 맛이 일품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 추석 선물세트는 정성과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최근 정서를 반영해 가치와 품격 있는 제품들로 엄선했다”면서 “복분자 재고 증가와 가격 폭락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복분자 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올해 수매한 최상의 햇복분자와 매실로 만든 선물세트들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석 선물세트는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보해양조㈜ 고객상담실(080-585-3111)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복분자 드림 리뉴얼’

‘매취순 12년’

매실 원액에 화이트 와인을 더한 플럼 와인 ‘매이’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34.65 (-5.09)	⬆ 금리 (국고채 3년) 1.31% (+0.03)
⬇ 코스닥 663.69 (-3.92)	⬇ 환율 (USD) 1114.80원 (-5.10)

백화점 ‘명절 선물’ 배송전쟁 돌입

안전·신속·신선배송 최선…10일까지 5만원 이상 무료배송

추석을 앞두고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배송 작업에 돌입했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지난 31일 “접수데스크를 운영하며 명절 선물세트 배송을 사직한다. 광주신세계는 명절선물 배송 수요가 약 2만여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신세계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배송접수 인력을 지난해 추석 대비 20%가량 늘렸으며, 특별 배송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대규모 배송 물량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신세계는 청과 포장 시 완충제를 사용하며 한우, 굴비 등과 같은 정육 선어의 안전/신선배송을 위해 아이스팩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특별 냉장·냉동 배송차량을 운영하는 등 신선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신세계는 이른 추석으로 인한 더운 날씨에 대비해 올해 보냉박스와 냉매제 강화를 통해 제품의 신선도 살리기에 새롭게 나섰다고 전했다.

오는 10일까지 5만원 이상의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에 한해 무료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SMS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에 한해 배송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주는 한편, 배송확인 데스크(062-360-1085)를 별도 운영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1~13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올핸 정육 신선도 높이기에 힘썼다. 포장할 때 기존 상단 부 1개만 넣던 데서 하단부까지 1개를 더 넣고 선도 유지를 위해 보냉박스와 냉매 제 등을 강화했다.

신속배송 운영기간 동안 50여명의 배송인력을 충원하였으며, 평소 대비 10배가 넘는 배송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다.

배송 서비스는 5만원 이상 선물세트 구입 시 가능하며, 배송 접수는 시내 지역의 경우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 보낼 경우 9월 10일까지 접수해야만 전국 배송이 가능하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우값 추석 지나면 떨어질 듯

이달 중순까지 1등급 kg당 2만원대…이후 1만8천원대

좀처럼 그칠 줄 모르던 한우 가격 상승세가 추석 때 정점을 찍고 나서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발간한 ‘한·육우 관측월보’ 최신호에 따르면 추석이 있는 9월 중순까지 한우 1등급의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최대 2만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kg당 1만8745원이었다. 추석 대목인 데다 몇년째 한우 사육 마릿수가 계속 줄면서 공급 물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석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농업관측센터는 9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이 내려가 kg당 1만8천원 이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추석 대목이 끝난 데다 내달 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우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만 해도 3~7월 쇠고기의 kg당 평균 도매가격이 내내 1만8천~1만9천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우 가격 상승세가 반년 만에 꺾이는 셈이다.

농업관측센터는 보고서에서 “추석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수요 위축 정도가 관건”이라며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올해 ‘한우의 날’(11월1일) 소비촉진행사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수요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가격 폭락’ 수준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이 주된 견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한우 한 마리당 생산비를 고려하면 도매가격이 1kg당 1만6천원 이상일 경우 농가에서도 대체로 순수익을 볼 수 있다”며 “사실 지금의 한우 가격은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한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